

# 회의록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개최일시	2023. 4. 26.(수) 15:00	장 소	의회 3층 행정경제위원회실
참석현황	○ 재적위원 : 7명 ○ 참석위원 : 5명 ▷ 민간위원 : 조윤출(위원장), 최영근(부위원장), 최열(위원) 김훈(위원) ▷ 의 원 : 하은미(의원)		
주요내용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2023년도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안 심사		
회 의 내 용			
<p>■ 위원장 직무대리 : 개회선언</p> <p>■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p> <p>○ 위원장 선출 : 조윤출 위원(만장일치)</p> <p>○ 부위원장 선출 : 최영근 위원(만장일치)</p> <p>■ 2023년도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안 심사</p> <p>○ 공무국외출장계획안 제안설명 : 이재용 의원</p> <p>○ 공무국외출장 계획안(붙임참조)</p> <p>1. 출장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시드니·브리즈번·골드코스트 일대의 지속적인 친환경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금정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탐구</li> <li>- 시드니 지방자치 및 의회운영 시스템을 시찰하여 주민복지 증진방안 발굴</li> <li>-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문화·예술·교육·관광산업 등이 융합된 새로운 지역발전 기반 연구</li> </ul> <p>2. 출장장소 : 호주</p> <p>3. 기 간 : 2023.5.17.(수) ~ 5.23.(화) [5박7일]</p> <p>■ 심사결과 : 원안가결</p> <p>○ 재적위원 7명 중 5명 출석, 출석위원 전원 찬성</p> <p>※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6조제1항</p>			

## 발 언 내 용

○간사 하성훈 간사 의정팀장 하성훈입니다. 지금부터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안건 제안설명, 질의·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기까지는 금정구의회 하은미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은미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부의장 하은미입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장을 선출하기까지 제가 임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재적위원 7명 중 5명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원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열 위원 보통 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연장자라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의장님하고 제일 먼저 사진 찍는 분이 아마 제일 연장자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운출 선생님을 그냥 하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집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직무대리 하은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천 더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운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운출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운출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다음 순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위원장 조운출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운출입니다. 저를 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이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정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열 위원 이어서 부의장도 최영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험이 많으시니까...

○위원장 조윤출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근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영근 위원님, 편하게 앉은 자리에서 인사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영근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본인의 뜻 아니게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셔서 막강한 부위원장직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미흡하나마 능력껏 최대한 발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출 최영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금정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장 의원님을 대표해 자리해주신 이재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의원님께서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의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의원 이재용입니다.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금정구의회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3년 금정구의회 공무국외출장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의회는 호주를 방문하여 친환경 관광, 문화예술, 도시재생 분야의 정책 방향과 선진 사례를 시찰하고 금정구와의 비교 분석으로 지역 현황에 맞는 제도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공무국외 출장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출장 기간은 2023년 5월17일부터 5월23일까지 5박7일로 회기 운영 및 여러 가지 의정 활동 사항을 고려해서 시기와 일수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출장자는 전체 의원 12명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된 5명을 제외한 의원 7명입니다.

주요 출장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17일 부산에서 출발하여 인천을 통해 18일에 브리즈번으로 도착합니다. 5월18일에 브리즈번 엑스포가 열린 부지를 이용해서 만든 사우스뱅크 공원과 퀸즐랜드주 퍼포밍 아트센터를 방문해서 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도시재생 모델을 시찰합니다.

5월19일에는 골드코스트 친환경 농장을 방문하여 자연 문화 체험을 하며, 마리나 미라지, 펠리칸 빌리지, 스픛브릿지 등 골드코스트의 문화를 탐방합니다.

5월20일은 블루마운틴 국립공원과 카툼바를 방문하여 친환경 생태관광지의 모습과 자연, 관광, 개발, 취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21일은 워터국립공원과 포트스테판 지역을 돌아보며 친환경 생태관광지의 모습과 사

막 등 독특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역의 관광 레저산업의 발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5월22일은 바랑가루와 달링하버를 보며 노후화된 항만산업 지역을 시민공원과 예술문화가 어우러진 친환경 상업지구로 재개발한 모델을 시찰합니다. 바랑가루의 경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기관 섭외를 했으며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기관을 통해서 바랑가루의 발전 과정을 시찰할 계획입니다.

라이드시의회를 방문하여 선진 지방자치제도와 복지제도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 오페라하우스를 방문하여 문화예술의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돌아볼 계획입니다.

5월23일에 시드니에서 출발하여 인천 부산으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무국의 출장이 되기 위해서 개인별로 업무 분장을 미리 조금 정했습니다.

최봉환 의장은 공무국의 출장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강재호 김진아 의원이 관광 복지 분야를, 저와 양달막 의원이 친환경 관광분야를, 최종원 정윤철 의원이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출장지에서 세심하게 살펴보기로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출장 경비는 1달러당 1300원 기준으로 하여 의장은 391만600원, 의원은 358만400원으로 실 지급액은 350만 원이 저희 금정구 예산에서 지급이 됩니다.

금정구의회의 의원 공무출장 규칙에 따라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국외 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익혀서 알찬 공무국의 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출 이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 드린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최영근 제가 축산물 유통을 하다 보니까 호주에 전에 자주 갔었어요. 퀸즐랜드주 또 이런 쪽으로 자주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서도 제가 호주의 곳곳을 뭐 그 쪽 업체에서 소개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거기 가면은 벤치마킹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보다도 문화나 모든 게 다 앞서 있으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벤치마킹할 게 많은데 의회에서 굳이 호주를 택한 이유를 제가 듣고 싶어요.

○이재용 의원 저희가 이제 연수를 호주로 좀 잡은 이유예요. 호주 하면 좀 떠오르는 게 지금 친환경 생태 관광도시 그리고 오페라하우스로 이렇게 랜드마크가 되어 있는 그런 문화예술의 도시의 이미지들을 저희가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호주를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간 적이 없어서 인터넷이나 서적으로만 통해서 호주를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선을 호주가 아니라 저희 금정구 쪽으로 좀 더 시선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금정구에서 지금 필요한 게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금정산과 윤산 그리고 회동수원지 같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태광산업 부지로 묶여 있는 준공업지역으로 묶여있는 저 부지를 이용한다면 그 앞에 있는 금정문화회관 그리고 금정문화원 그리고 반대편의 경찰서 부지도 지금 뭐 이동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이전하는 공사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구서역도 있고 뒤에 보면 그 배후에 유흥으로 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지역이 우리 금정구에서 문화예술로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충분히 지정이 가능하겠다. 이 지역을 좀 더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될까 했을 때 호주의 그런 문화예술 도시의 이미지 그런 것들이 떠올랐고요.

그래서 호주에 가서 이런 선진 그런 문화예술 지역을 한번 보고 와서 그것을 힌트 삼아서 우리 금정구의 중장기발전계획으로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호주를 좀 가려고 추천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영근   제가 덧붙여서 부탁을 드린다면 퀸즐랜드 쪽에 가시면 정말 거기 거리고 도시 짜임새하고 정말 아름답게 돼 있거든요. 거기가 아주 깨끗해요. 그런 것을 좀 많이 보고 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재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열 위원   저도 호주 여러 번 갔다 왔고 아까 퀸즐랜드 이런 데도 다 갔다 왔습니다. 저도 대학교수 생활이 30년이 넘는데, 부산시 도시계획위원장도 했고 다 해봤습니다. 조금 하나의 팁을 준다 그러면 여기에 갈 곳을 금정구하고 공간적으로 매칭을 좀 시켜줘야 돼요. 매칭을 시켜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 갔다 오면 전부 다 이런 패키지도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라이드시의회에 갔다 와서 의회민주주의 탐구한다 이 정도 같으면 괜찮겠지만 그 외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랑가루를 간다 그러면 금정구의 어느 부분을... 이것이 서동이라든지 금사동에 만약에 이 부분을 한다고 생각할 적에 안 그러면 금사동에 오래된 거... 공업지역 재개발, 낙후지역 재개발하는데 거기에 호주에 이런 부분이 성공했기 때문에 거기 한번 갔다 와본다 이러면 누구든지 그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것 보러 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오페라하우스는 일정에서 제외하는 게 좋습니다. 오페라하우스하고 금정구가 무슨 관계 있나 이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물론 랜드마크지만, 그것은 북항에 오페라하우스 하는 사업이라 이러면 우리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갔다 온다는 것은 누구든지 납득이 가지만 그 외에는 납득이 안 갑니다.

안 가니까 도시재생도 지금도 옛날 같으면 바짝 도시재생도 뚝지만 지금은 도시재생은 또 한물 가는 거예요.

저희 금정구에 가장 낙후된 부분이 아까 서동이나 금사동에 낙후된 공업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저기 시드니라든지 호주의 어느 부분이든지... 하다못해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거기를 갖다 오세요.

블루마운틴 국립공원하고 여기가 뭐... 금정산 국립공원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블루마운틴을 한번 갖다 오겠다든지 그렇게 이야기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친환경 농장을 만들었는데 금정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기에 염소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골드코스트 친환경 농장도 있더라 자연문화 체험 이런 것으로 해서 약간의 주민 지역사업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매칭을 시키겠다라든지. 금정구에 있는 공간계획하고 여기다 분명히 매칭을 시키세요.

○이재용 의원 예, 우리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금정구와 이제 공간적인 매칭을 꼭 하시라는 그런 조언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금정구 같은 경우는 우리 금정산은 또 국립공원화의 움직임이 또 있고요. 윤산 오륜대 같은 경우는 또 시립공원 지정의 움직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공원화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 이런 시기에 호주를 좀 들러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과 워터국립공원 돌아봐가지고 금정구의 자연환경들이 자원들이 친환경 관광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바랑가루하고 이런 데가 산업단지로서 경쟁력을 계속 잃어갈 때 시민공원 레크레이션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그런 주상복합용도로 전환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사공업단지가 금정구에서는 정말 아픈 손가락입니다. 이 아픈 손가락들을 저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런 금사공단에서도 저희 근대화의 역사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해서 우리 옆에 있는 오륜동 친환경 공간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금정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벤치마킹 잘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열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출장 일정이나 여기에 비고란에다가 전부 다 그거 적으세요. 나중에 남는 거는요. 우리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설명이 한 개도 안 남고요. 남는 거는 이 도서가 남거든요. 도서가 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업무내용에 전부 다 비고란에도 좋고 여기다가 다 매칭을 좀 시켜놓으면 누구든지 이해를 좀 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 잘했잖아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으로 보는데 금정산 국립공원이라든지 윤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거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적으면 조금이라도 나올 겁니다.

○이재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발언했던 부분들 비고란에 다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에 다 남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열 위원 예.

○위원장 조윤출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이야기하실 분 없습니까?

○김훈 위원    최교수님이 전반적으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저는 공무원 출신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해외 공무출장보다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공무출장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의 비판이 더 좀 심하다라고 하는 데는 저는 동의를 그동안 못 했습니다. 동의를 안 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고.

지방의원들도 똑같이 어떤 역할이 있는데 지방의원들 보다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언론이 좀 관대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것 공무출장 심사와 관련해서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최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것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tv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부산 mbc하고 대구 mbc에서 공동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빅벙커라고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 지방의원들 예산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국외여행 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보도를 조금은 이제 심도 있게 좀 하는 것을 저도 한번 봤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 제가 보니까 시청자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직접 공무원 할 때 겪었기 때문에 느낀 바는 이렇습니다.

공무 국외여행 출장과 관련해서 이것을 심의하는 것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중요한 것은 갔다 오게 되면 주로 뉴스에 부각되는 것은 최근에는 가는 것보다는 출장보고서라든지 이런 데 초점이 좀 있더라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의 흐름이 그렇더라고요. 가시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갔다 왔을 때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규정 접목하는 방법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게 주로 집행부 하고의 어떤 체크 차원도 있고 또는 협력 차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좀 활용을 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 중요도에서. 가는 취지에 있어서의 어떤 심사 과정보다는 갔다 왔을 때 조금 그래도 이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갔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한 5박7일 갔다 와가지고 이것을 뭐 어떻게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정보 습득이 되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최소한 의회사무국에서도 갔다 와 가지고 공무국외여행 갔다 온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알차게 해서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눈여겨 본 내용들을 보고서에 넣고,

그다음에는 또 의회가 우리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과 함께 또 같이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협력하고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열 위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현재 울산 남구에 교수로서 부산시도 아니고 울산 남구에 내가 지금 정책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작년에 포르투갈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되게 웃긴 이야기지만 포르투갈 갈 때 저는 공짜로 갔다 왔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대학교수인데 국립대 교수인데 혹시나 우려되어서 나중에 보고서 다 쓰고 ubc 방송에 해가지고 그것이 세미나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갔다 온 거 있으면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도 부르고해서 우리 이렇게 갔다 왔는데 주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어떤 세미나라든지 그다음에 방송국하고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되어진다면 이르면 우리가 이것 진행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 이렇게 해야 그거 하지, 안 그러면 이거는 언제든지 좋은 취지로 갔다 와도 좋은 의미로 갔다 와도 이것은 공격의 대상이 충분히 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좀 완화시키려면 아까 그런 식으로 자꾸 세미나도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하세요.

얼마 전에도 ubc 방송에 제가 울산에 야간 경관이라고 포르투갈의 야간 경관을 보고 왔어요. 보고 와 갖고 울산에 태화강 주변에 야간 경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ubc 방송에 해가지고 제가 좌장으로까지 해갖고 얼마 전에 저기 거의 1시간40분 동안 했었어요. 세미나 해가지고 거기 국회의원도 오시고 거기 크게 행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울산 태화강에 이런이런 사업하겠다.’ 실제로 또 되어져요. 실제로 되어져 가지고 ‘아, 정말로 벤치마킹을 제대로 하고 왔구나’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저 앞전에도 두 팀이 나뉘가지고 한 팀은 독일 가고 한 팀은 또 다른 데 갔잖아요.

갔다 와갖고 아까 전에 보고서, 좋다 그래요. 그 외에는 하는 행동이 뭐가 있나 그거지. 거기 갔다 와서 과연 실제로 우리 금정구의 주민 복지 주민 삶의 질을 위해서 세미나라든지 뭐든지 뭘 했는지 라든지 이런 것도 과정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금정구 주민이거든요.

○부위원장 최영근 예, 우리 최열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코스 자체가 오페라하우스 또 블루마운틴 공원 이런 데가 우리 국내 사람들이 거의 다 아는 관광지거든요. 관광지다 보니까 실제로 좋은 취지로 갔다 와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코스예요. 그래서 우리 최열 교수님께서 그걸 염려해서 아마 처방을 내린 것 같아요. 맞죠?

○최열 위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영근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보고서나 뭐 세미나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잘 연구하셔서 욕 안 먹는 괜히 욕 먹으면 우리까지 같이 욕 먹어요. ‘이 사람들 뭐 했노.’

○최열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영근 이렇게 나오니까. 나 언론 타기 싫거든요.

○이재용 의원 예, 우리 위원님들이 또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아무리 출장이 내실 있게 계획된다 해도 또 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그러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 관광에 머물 거고요.



또 저희가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가더라도 그 안에서 정말 배울 게 많다고 고민하고 많이 보고 온다면 그것도 내실 있는 연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 다 모여서 이번 연수 가기 전에 마음가짐 다시 한 번 저희가 하고 갈 거고요.

저번에 빅벙커 이런 데서 저희가 공무출장 보고서 관련해서 거의 뭐 짜집기 식으로 올라오고 해가지고 나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전 대에는 많이는 못 갔는데 한 번 이제 독일을 갔었는데요. 독일 갔다 와서 뮌헨하고 베를린 갔다 왔을 때 거의 밤마다 의원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때 그날그날 얘기들을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보고서 쓸 때 저희가 정말 참고자료 하나 없이 저희들이 겪었던 걸로 전부 다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전문성은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하나 배긴 것 없이 저희의 생각으로 또 들어간 보고서가 나왔다고 해서 저희도 그때 좀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금정구랑 이렇게 금정구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 금정구 사례로 만들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더 개발하고 가능하다면 세미나나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알릴 수 있는 시간도 꼭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출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이 오늘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가면 갔다 오면 언제든지 원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보고서고 뭐 오늘 우리 최 교수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셔서 또 참작을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원성을 안 듣고 이런 보도가 좋게 나오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또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하은미 위원 사실은 저희가 해외연수 갈 때 오늘 최영근위원님 최열위원님 김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걸 저희도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여러 장소를 놓고 할 때도 이번에 주제부터 시작해서 고민하고 정리하는 거라 저희 나름은 고민하고 선택하고 이러는 걸 했지만 저희가 이 계획서 상에 다 못 담은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최열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남들이 어떤 마음가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충분히 또 나쁘게 볼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겪어봤었고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저희 의원님들께서 다들 더 많이 공감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금정구에 조금이라도 보고 왔던 부분이 언제든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주민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들... 저는 여기에 호주가 있는데 같이 동참을 하지는 않지만 일전에 호주를 의회에서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시기에 같은 걸 봤으면 또 다른 변형된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 거니까 더 의견을 많이 주고받아서 더 좋은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출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지나갈 때 의결서 심의의견란에 가, 부를 표시하시고 서명하시면 집계해서 의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금정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안은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으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시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셔서 내실 있는 연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